

2022 상반기 책동네 산책 프로젝트 운영

아무튼 완성! 미추홀 그림책

처음 만나는

문 학 산 이야기

글그림 전지현

강사 정인석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미추홀(彌鄒忽)이에요.
인천(仁川)의 역사는 미추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백제 건국 신화에는
기원전 18년에 비류가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미추홀에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 중심지가 바로 문학산(文鶴山)입니다.



문학산의 이름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산의 형세와 관련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두루미가 날개를 편 듯
둘레를 크게 에워싼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문학산은 오래전에 남산, 학산, 봉화독산,
성산, 배꼽산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대요.

인천도호부 남쪽에 위치해 있어 남산
산의 형세가 학의 모습과 같아 학산
산 꼭대기에 봉수가 있어 봉화독산
산 위에 산성이 있어 성산
멀리서 본 봉화의 모양이 배꼽같아 배꼽산



현재의 문학산은
노적산-연경산-문학산(주봉)-수리봉-길마산
5개의 봉우리가 동서로 가로 지르며
약 4.5km의 산록이 이어져 있는 산괴를 말해요.

문학산의 높이는 217m로 그리 높지 않은 산입니다.

217m





문학산의 등산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문학산과 얹혀 있는
다양한 설화들을 마주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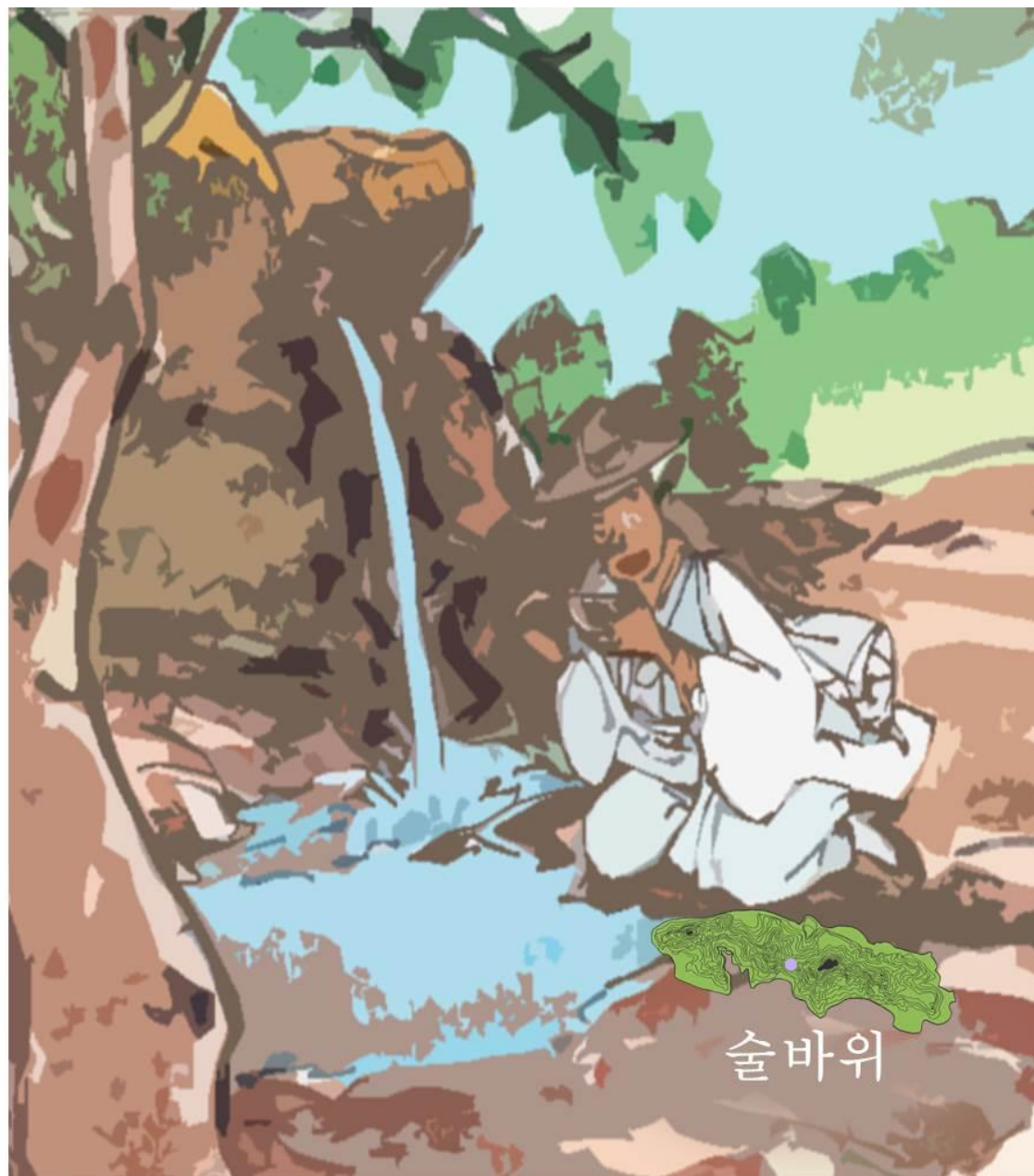
삼호현(三呼峴) (사모지고개)

사모지고개는 문학산 주봉과 연경산 사이에 있는 고개예요.
 옛날에는 인천 읍내에서 송도 방향의 바다로 갈 때
 이용하던 교통로였어요.
 현재는 미추홀구의 학익동과 문학동에서
 연수구 청학동을 연결하는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어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 가는 백제 사신들이
 가족들과 이별을 한 후 사모지고개에 이르러
 가족들을 세 번 부르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고 하여
 ‘삼호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사모지고개 아래쪽 벼랑의
옴퉁 파인 곳에 있는
큰 바위가 ‘술바위’ 에요.
중바위, 사모주바위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대요.

사모지고개를 지나가던 선비가
힘이 들어 잠깐 쉬어가려고 하자
어떤 한 여인이 바위에서 나와
술 3잔을 권하고 들어갔어요.
그 술맛을 잊지 못한 선비는
다음날에도 바위를 찾아갔지요.
선비가 술 3잔을 마시고 나서
한 잔 더 마시려고 하자
여인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선비는 바위에 무릎을 대고
이마를 짚으며 술을 더 달라고
애원했지만 여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바위에는 술이 간절했던
선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전해져요.





문학산 정상 봉수대가 있던 자리 아래에
'안관당' 이라 불리는 사당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김민선(金敏善) 부사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이에요.

근대 시기까지 남아있었는데
현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해요.

안관당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할아버지와 할머니상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마을신으로 모셨지요.

그런데 어느 한 부인이 안관할아버지의
힘상곳은 얼굴을 보고는 흉을 보았어요.

그 후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생긴 것이 안관할아버지 목상처럼
못 생겼고 “씨익-씨익”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부인이 사당에 있는
안관할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그런 아이를 낳았다고 수군거리며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사모지고개를 넘어 청학동 쪽으로
약 15m 가량 내려가면 연경산 비탈에
‘갑옷바위’ 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어요.

옛날 어느 한 장수가
인천에 적이 쳐들어오면
사용할 갑옷과 투구를
바위 밑에 숨겨 놓았지요.
그리고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안전당을 지키던 호기심 많은 당지기가
갑옷을 확인하기 위해
도끼로 바위를 내리쳤대요.
그 순간 당지기는 벼락 맞아 죽었고
바위는 깨지면서
갑옷이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바위가 배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배바위’ 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를 할 때
후세 사람들에게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이라

이런 모양의 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져요.



길마산 전망대에서
문학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바로 그 밑에 '산신우물' 이 있어요.

옛날에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매일 밤 우물에서 가서
산신 할머니께 정성껏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한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은 부부에게 아침 일찍
어디를 갔다 오느냐고 물었지만
부부는 부정 탈까 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길가에서 만난
그 부인에게 태기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은 부부의 태기가
부인에게 옮겨갔다고 생각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날부터 이 우물을
산신우물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문학산은 조선시대에
인천의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더불어 군사적 요충지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문학산 정상부는 1962년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부터 다시 개방되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문학산을 걸어보지 않을까요?

문학

MUNHAK

인천의 역사가 시작된 곳, 미추홀!

미추홀의 중심지, 문학산!

우리 마을 문학산으로 놀러 오세요!